

“무한봉사를 선언합니다”

2일, 선운당서 생활 의례봉사단 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산하 생활의례봉사단(단장 강홍원·前 포교사 단장)이 4월 2일 서울 경지동 중앙신도회관 선운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무한봉사를 펼칠 것을 선언했다.

생활의례봉사단은 염불·염수·불교제례 봉사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에서는 유영춘 염불팀장, 박상기 염수팀장, 김승연 불교제례팀장이 각각 추대돼 봉사단을 이끌게 됐다. 봉사단은 서울·경기권에 봉사단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12그룹을 뒀고, 각 그룹별 연등장과 부연등장, 단원을 배치했다.

봉사단원은 사전에 염불·염수교육과 불교 상례 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봉사들로 구성됐다.

염불 봉사단은 환자가 있는 병원

이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가족과 함께 경전을 독송, 정근 등을 실시해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다.

또 염수 봉사단은 고인의 소렴(小殮)과 대렴(大殮) 작업을 맡고, 제례봉사단은 불교식 제례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강홍원 생활의례봉사단 단장은 “불교 장례 등 생활의례봉사를 통해 어려운 불자들을 돕고, 불교 의례문화가 우리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봉사단 활동에 매진하겠다. 또 본인(서울)과 지방이 연계한 불자생활공동체 상부상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지부 설립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불교 장례 등 생활의례봉사를 원하는 불자들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전화 상담으로 생활의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울 경지동 전법회관에서 ‘제3기 불교 상장례 염불봉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총 20장으로 구성된 강의는 △불교염중의례 △상례·매장작법 및 수계 △염불의 공덕·수행 △염수 △성복제 △발인작법 및 영결식 △다비 등으로 진행된다. (02)720-1097

교인중의례 △상례·매장작법 및 수계 △염불의 공덕·수행 △염수 △성복제 △발인작법 및 영결식 △다비 등으로 진행된다. (02)720-1097

박선주 기자 zoa211@buddhapia.com

조계종 자원봉사단 전국 확대

조계종 자원봉사단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돼 지역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4월 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충청지역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병행했다.

충청지역 자원봉사단은 마곡사(주지 원혜)와 수덕사(주지 웅산)에 설치되는 불교자원봉사선

터 중심지로 지역 불자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및 다양한 포교·봉사활동을 펼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운희 과장은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가자”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원폭 피해자들이 참가해 당시 사진 공개 및 증언·토크로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의 폐해를 성토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위안부 문제는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인 류역사상 가장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일본과 한국 등 전쟁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만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3월 31일 열린 제9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와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사는 결코 덮여지지 않는다

日초등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표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규탄

일본정부의 과거 침략악역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초등교과서 등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참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3월 3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911차 수요 집회를 병행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나눔의 집은 국내 유일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이다. 나눔의 집은 사회단체들과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 집회 등을 통해 일본 측의 공식사과 발표 및 피해보상을 적극 주장해 오고 있으나 일본의 무대응으로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기준 위안부피해 신고자는 234명이 고 이 중 90명만이 생존해 있어 조속한 해결이 절실하다.

이날 집회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배춘희, 이옥선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여성개발원, 고등학교연합회 등

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젊은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간 대한의 꽃들이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됐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의 관심과 적극 대응 △일본정부의 사죄 및 배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나눔의 집 배춘희 할머니(81세)는 “일본 대사관을 수요일마다 찾았지만 일본은 수십년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참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과

표명이 있을 때까지 수요 집회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4월 3일 광주 나눔의 집 쉼터에서는 전쟁으로 피해를 받은 한일 양국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한일 우정 페스티벌’도 개최됐다. 이날 우정 페스티벌에는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한·일

1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불교계 모든 사회복지사 대상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2010년 국가 지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120여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650여개를 중심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전국14개소 시설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총 23회(수도권 10회, 지방 13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1차 교육은 4월 10일 오전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제1차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기술과 라포(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형성 기법 △윤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본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시설의 브랜드 전략으로 마련된다.

(02)723-5101-2

박선주 기자

권역	회수	일시	주최 및 장소
수도권	1차	04.10(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2차	07.09(금)	승가원/승가원대강당
	3차	07.10(토)	승가원/승가원대강당
	4차	07.24(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차	10.23(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6차	10.30(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7차	11.06(토)	진각복지재단/진각복지센터
	8차	11.20(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9차	11.27(토)	인덕원/인덕원 강당
	10차	12.11(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충청권	1차	6.26(토)	대전서구 노인복지관
호남권	2차	6.12(토)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3차	6.19(토)	비라밀/화순 나들이보안복지관
영남권	4차	4.24(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5차	8.28(토)	함께하는마음재단/삼구사회복지
강원권	6차	5.29(토)	강릉장애인 종합복지관
	7차	4.17(토)	수원영동종합사회복지관
	8차	9.04(토)	연꽃마을/용인시노인복지관
	9차	9.11(토)	연꽃마을/일산노인복지관
	10차	10.16(토)	수원영동종합사회복지관
	11차	10.19(토)	시설장 대상전통불교문화원
	12차	11.16(토)	실무책임자 대상전통불교문화원
	13차	12.04(토)	연꽃마을/파리밀요양병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간 교육계획. 교육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표현의 자유 VS 종교의 권위

가수 에이콘 ‘부처 모독’ 스리랑카 공연 무산



부처 비자도 거부했다.

최근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PETA가 ‘동물들을 구입하지 말고 입양해달라’며 십자가로 알몸을 가린 모델을 광고에 등장시켰다. 국내 모 방송사에서는 수녀복을 찢는 키스신을 방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권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상업적인 작품에 종교상징물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에 무제한적 표현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악’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출신의 유명 R&B(알앤비) 가수 에이콘(AKON·사진)도 이러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월 24일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던 에이콘

은 ‘부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

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에이콘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스리랑카의 한 민영방송국에 찾아가 시위·항의를 하는 동시에 돌을 던져 분사 건물을 파손 시키고 4명의 부상자를 내게 하는 사교를 일으키기도 했다.

AFP통신은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에이콘의 콘서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 콜롬보에 있는 방송국 건물에 돌을 던진 시위대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란이 생기기 전까지 뮤직비디오에 불상이 나왔는지도 몰랐고 특정 종교를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는 본뜬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움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30) / 30cm x 50cm(40)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용량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사우나, 스포츠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사우나, 스포츠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삼림원 (한국산)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헬스케어 좋아짐에 확신이 잘 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
· 용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사우나, 스포츠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삼림원 (한국산)

‘건포·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개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각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 습포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돋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